



통권 101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0. 3. 14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진
<앞>지 박성찬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인천TV방송국과 가톨릭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토론회'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2월 23일 열렸다. 진중훈 신부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권 회장은 발제문에서 송환의사를 보인 51인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인도주의적으로 송환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노정선 연세대학교수, 이기욱 민변 동북아위원장, 신준영 '말'지 기자, 해조스님(불교 장기수후원회 윤연위원장)등이 참석해 상호주의 입장의 문제점과 송환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총선전략에 밀린 양심수 사면

이른바 '밀레니엄 사면'이 정치권의 총선분위기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났다. '밀레니엄 사면'은 원래 정부당국이 꺼낸 말이었다. 지난해 광복절 사면이 미흡했음을 인정하여 연말에 큰폭사면을 하겠다면서 불인 말로서 새천년을 맞기전 묵었던 현안들을 청산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12월에 있었던 청와대 초청 오찬모임에서도 양심수 가족들은 양심수석방과 사면·복권,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했고 새천년에는 양심수가 없는 사회를 이루자며 국가보안법폐지와 함께 밀레니엄 사면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러나 막상 연말이 다가오자 '시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밀레니엄 사면은 대통령취임 2돌이나 3.1절로 미룬다 했었다. 다만 양심수 9명만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했을 뿐이었다. 양심수가족들은 치미는 분노와 실망을 삭이면서 당국이 말하는 '시간이 촉박했음'을 억지로 이해하며 다시 3.1절 사면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당국자는 쉽게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 가족들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다. 다른 자식들처럼 학교도 다녀야하고 직장도 구해야하며 가정도 이루어야 할 터이었다. 더구나 옳은 일을 하고 바른말을 한 것이 무슨 죄가 되기에 감옥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잠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아픈 마음이 뼈속깊이 파고 들고 있었다. 한때 시한부생명이란 진단을 받았던 중증 간경화를 앓고 있는 박경순씨 가족들은 더욱 눈앞이 캄캄했다. 사면때마다 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언제나 제외하곤 했던 한총련 간부등 청년학생 가족들, 통일열정으로 북녘땅을 다녀와 구속된 70살이 넘는 구속자 가족, 사람답게 살기를 주장하며 생존권을 지키려 활동하다 구속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가족들도 있었다. 바로 처음부터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양심수들이었다. 그들은 민가협 목요집회에 함께하며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당국에겐 즉각석방을 촉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정된 사면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당국에서는 아무 방침도 밝히지 않았다. 양심수가족들은 청와대와 정당대표에 면담요청을 하는가 하면 집권당의 인권위원장, 정책위원회위원장, 법무부 관계자를 찾아 양심수사면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당국에서는 사면 자체를 아예 밀어놓고 있었다. 양심수 사면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면을 하게되면 야당으로부터 '정략사면'이

라는 정치공세를 당한다는 것이다. 양심수 사면과 총선은 별개의 문제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끝내 사면방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대했던 '적극검토'도 총력전에 들어선 정치권의 총선분위기에 묻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책위원회위원장의 공식선언이 발표되었다. '밀레니엄 사면은 선거를 앞둔 정략사면이란 정치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개탄할 일이었다. 총풍·세풍, 방탄국회로, 옷로비, 파업유도 폭로국회로, 2년동안을 파행으로 몰고온 오늘의 정치권. 그 진흙탕 싸움질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인류가 추구해왔었던 보편가치로서의 인권문제까지, 인간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마저 당리당략의 정쟁대상이 되어 무참하게 짓밟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형태의 고비용 저효율을 떠나 정치권 일반의 몰가치성 야만성 후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양심수문제 해결등 인권개선과 관련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집권여당의 주장은 오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해는 되지만 면책까지는 될 수 없다. 정당은 일정한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정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결합된 정치단체이다. 정당은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강령과 정책목표를 갖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하지 상대를 중상모략하거나 요즘 보여주고 있는 지역감정 따위로 표를 모으려 한다면 처음부터 집권능력도 없는, 단지 권력장악을 위한 이익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정당은 정권을 잡아야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생리상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책대결에서만 승패를 걸어야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민주정당이 될 수 없고 파쇼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정당의 정책대결은 그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고 지향하는데 따라 규정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정당이 지향하는 계급적 또는 민족적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인권과 행복추구 등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구해야 할 것이다. 현 집권당이 정의평화와 인권보장을 정책으로 채택했다면 비록 양심수사면으로 오는 득표에서의 불이익이 있다해도 그것을 기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당한 일이라면 야당의 반대나 공격을 당한다 해도 계속 추진

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기본이기 때문이다.

총선과 관련 표를 의식하여 양심수 사면을 미룬 일은 바로 김대중 정권 2년의 인권정책 축소판이기도 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는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 바로 외세와 분단구조를 허물고 독재와 억압체제를 뜯어 고쳐야 할 유권자(민중)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할 의미가 있었다. 특히 당선소감에서 말했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은 땀먼저 실천했어야 했고 대통령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난 오늘, 그러한 약속은 빗바랜 채 남겨져 있다. 야당과 수구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마치 총선 때문에 약속된 밀레니엄 사면을 못하는 격이었다. 새 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는 50년 이어온 탄압기구와 억압장치를 해체하고 그러한 탄압구조에서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야 했다. 바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을 없애고 양심수의 석방과 사면·복권, 정치수배해제 조치가 있어야 했다. 그것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백보를 양보하여,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안기부 수사권삭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삭제, 보안관찰법 사상전향제 폐지,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등은 아무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제 김대중정권 2년은 몇가지 인권지표를 통해 인권정책의 실상과 한계를 알아본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가 없었다. 현정권은 야당때부터 폐지론, 대체입법론, 독소조항 삭제론 등으로 일관성이 없었지만 적어도 국보법 7조, 10조 등 독소조항을 없앨 것이라는 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검토서안'에서는 독소조항의 핵심인 7조3항을 존치시킬뿐 아니라 다른 항목 삭제부분을 보장하기까지 하려 했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막기 위한,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는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아직도 인색하기만 하다.

다음으로 양심수문제이다. 인신구속은 어떠한 인권침해에 앞선다 할 것이다. 현정권은 집권 2년동안 1207명(국보법 681명)을 구속함으로써 김영삼 정권시절 같은 기간 1012명(국보법 526명)을 뛰어넘었다. 한총련·범민련 등 이적규정이 주된 요인이었고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를

사법처리대상으로 보는데서 비롯되고 있었다. 또한 범민련·한총련 말고도 안양사랑청년회 같은 청년단체와 반미구국한양 같은 각 대학에서의 이적단체사건과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 죄를 씌우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역행적인 냉전논리와 공안시각 때문이었다.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는 끝내 있지 않았다. 다만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고 있던 조계사 농성단에 대해 일부 완화된 조치가 있었을 뿐이었고 아직도 400여명이 거리에서 쫓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몇가지 긍정적 측면도 보게 된다. 앞선 정권들과는 달리 양심수를 인정하고 제한적이나마 석방조치를 했다. 사상전향제를 없애고 비전향장기구금양심수를 조건없이 모두 석방했다. 사상전향제를 없앤 대신 준법서약제를 만들었지만 1년도 안돼 그 실효성을 잃고 지난해 광복절 사면부터는 서약없이 석방을 했다. 현정권 들어섰을 때 구속양심수는 258명이었지만 더 많은 양심수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2돌 현재 100여명으로 줄어든 점 등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율이 6%이내일 정도로 국가보안법이 위력을 잃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400여일에 걸친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과 보상,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도 꼽을 수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5.18과 4.3항쟁관련 보상법이 만들어진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이 살아있고 인권침해를 막을 인권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한총련 학생(44명)을 비롯한 통일운동 관련단체야인사(29명) 노동자(10명) 등 85명이 갇혀있다. 그리고 학교로도 가정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정치수배학생들이 있다. 정치권공세가 두려워 사면을 미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 인권개선을 위해 약속한 일들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을 없애고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인권법을 제정하라.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고, 사면·복권 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권오현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유인물을 읽고 책 몇권 본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 과기대 양정은 학생의 어머니 이혜숙님

꽃. 한 송이 국화꽃. ‘여고시절’ 하면 떠오르는 몇가지 풍경중 하나는 수업시간에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읽다 눈물을 보이던 국어 선생님의 모습이다. 주제와 은유법, 비유법을 따져가며 그저 입시를 위해 시를 읽던 우리에게 선생님의 눈물은 너무 생경스러웠다. 시를 읽다 울 수도 있단니.

졸업을 하고 나서야 선생님이 흘린 눈물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내가 그 때 그랬었니? 그 즈음 딸을 시집보냈는데, 아마 시집간 딸에 생각에 주책맞게 수업시간에 눈물이 났나보네. 너희도 부모님께 잘해라. 부모 마음은 그런거야.”

한동안 또 잊고 있던 ‘국화꽃’이 다시 생각난 건 이혜숙님을 뵈고서다. 단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천둥은 울고 소쩍새는 피를 토하는데, 하물며 자식이라는 한 송

이꽃을 피우기위해 부모는 그리고 보랏빛 수건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마음을 녹이고 뼈아파하는가.

전라남도 담양에서 먼 걸음을 한 어머니는 다소 지친 모습이였지만, 딸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동안은 기운차였다. 아니 그러려하셨다.

“내가 우리 정은이한테 그랬거든요.

‘엄마는 네가 나올때까지 건강할테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말라’ 고요. 내가 아프면 우리 딸이 나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프구나하는 생각이 들면 막 죄책감에 시달릴거 아니예요.”

호리호리한 몸매에 약해보이는 어머니지만, ‘어머니’ 이기에 이혜숙님은 한창 때인 딸보다 두배는 강하고 백배는 마음 씩씩이가 깊다는 생각에 다시 그 선한 눈빛을 보게 된다.

양정은양(과기대 94학번)이 구속된 것은 99년 1월의 일이다. 과기대 내에 이적단체인 자주대오를 결성,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되어 5명의 학생이 구속된 것이다. 그러나 정은이는 재판내내 자신들은 학생회 활동을 했지, 자주대오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이 기소한, 정은이와 구속학생들의 주요 활동내용이라는 것은, 두어차례 한총련 관련 문서를 읽고 자기들끼리 토론한 것 수준이었다. 자주대오라는 조직도 무슨 활동을 하거나 실체를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엉성한 이적단체였던 것이다.

2000년. 민중가요인 ‘바위처럼’이 울동과 함께 KBS 라는 공영방송의 전파를 타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국으로 방송되는 2000년에도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고, 노랫말의 ‘바위처럼’ 우직하고 강직하게 살고자 한 청년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혼자의 체온으로 겨울을 보내야 하고 황금보다 소중한 시간을 삭혀야 한다.

“정은이가 2학년때 편지를 썼더라고요. 학생운동을 하겠다고. 그런데 나는 이런 정치활동일꺼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여고시절에 학생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워낙 과기대는 공부만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지요. 게다가 우리 정은이는 카톨릭 동아리에 나가면서 성당에서 교사도 하고 해서 공부만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만 알았지. 정은이는 항상 우리에게 기쁨만 주던 아이거든요.”



아기때부터 '요기 앉아 있거라' 하면 움직일 줄 모르고 그대로 앉아 엄마를 기다리던 순둥이 아기, 정은이는 자라면서도 그렇게 순하고 똑똑했다. 초등학교 다닐적엔 선생님이 신문에서 아는 한자에 동그라미 쳐오라는 숙제를 내주면 대충 하는 법이 없이 새벽 2, 3시까지 잠을 쫓아 가며 앉아서 다 찾아야 잠을 잤다. 어린 아이가 새벽까지 신문을 살살이 뒤지는 모습이 안쓰러워 '이거 선생님이 그렇게 꼼꼼히 검사 안하신다.'고 말을 해주어도 막무가내였다. 숙제니까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순둥이 정은이한테는. 중학교 다닐적 숙제인 감지도 마찬가지로였다. 불편 한 자루를 들고 촛촛히 연습장을 채우느라 애를 쓰는 것을 보다 못해, 일종의 편법으로 '불편 두자루 붙여 쓰기'를 알려 주어도 어떻게 숙제를 그렇게 할 수 있냐며, 남들보다 배의 시간을 들여 숙제를 해 가는 '정직한' 학생이었다.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며 자란 정은이에겐 '수재'들이 모인다는 과학고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과학고에 들어가면서 부모와 떨어져 생활 하는 것도 낯선데다, 정은이가 방청소를 하는데도 공부를 해야한다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룸메이트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명석한 머리로 순탄하게 입학한 과기대는 정은이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대학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넓은 바다였다. 그곳에서 정은이는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주(自主)라는 말을 배웠다.

'그리고보면 저도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그 욕심나는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하나씩 상상해 보면... 따뜻하고 아늑한 집, 맛있는 먹을 것들, 잘 어울리는 옷들, 유쾌한 여가 등등. 하지만 그러면? 모두가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 이상이지 못하는 허망함이 느껴집니다. 가끔 머릿속으로 동경하게 되는 그런 상상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다 보면 당황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어서... 그와 반대로 동지들, 투쟁들을 한 번 그려보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가슴뛰는 상상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중)

어머니는 96년의 여름을 잊을 수 없다. 담양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앞둔 어머니는 조금 들떠 있었다. 장성한 아이들은 대전에서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제 몫을 하고 있었고, 이제 조금 느긋하게 순초

록의 자연속으로 들어가 한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넉넉해질 즈음이었다. 이사 예정일인 8월 17일을 며칠 앞둔 13일, 어머니는 정은이와 통화를 했다. 새 집에 모여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잠깐 내려오라고. 그리고 이틀후 연세대 사건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혹시해 정은이에게 호출을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었다.

"아휴, 정말 내가 그 때를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정은이 호출기에 계속 메모를 남기면서 뉴스를 보니, 이게 웬일이야. 전경들이 아주 애들을 질질 끌고 가고 그 위를 지근지근 밟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정신이 아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해지는지... 정은이가 저 속에 있는게 분명한데 말야."

연세대에 전화를 걸고, 과기대 총학생회에 전화를 걸어 정은이를 찾으며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정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여기 지금 3천명이나 함께 모여 있으니까 아무 걱정마세요.'

한총련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강제해산 당한 후, 성동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가 오면 훈방조치해 내 보내주겠다고. 정은이는 엄마대신 서울에 있는 고모를 보내달라고 집으로 전화를 했다. '그 와중에도 집에 간다는 말은 안하고 학교로 가겠다'는 정은이를 고모는 강제로 차에 태우고 장대빛숙을 해쳐 정은이를 집까지 데려왔다. 정은이는 아직 여리고 작은 봉우리이기에 그렇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후 정은이는 더욱 진지하게 학생운동에 몰입해갔다. 한가지 일을 시작하면 다른 일을 병행하지 못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성격으로 인해 정은이는 그 후에도 한총련소속 대전총련에서 선전국장으로 일을 했다.

그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따로 방을 얻어 생활하는 정은이가 걱정되어 대전으로 올라온 부모님은 깜짝 놀랐다. 정은이 방엔 정은이가 아닌 다른 학생이 대



신 살고 있었다. 숙내를 알고 보니 정은이는 방을 친구에게 내주고 자신은 충남대에 차려진 대전총련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든 부모님과 상의하고 고민을 나누던 딸이었기에 부모님들은 정은이에게 배신감마저 느꼈다. 그 날로 짐을 싸 정은이를 담양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인 99년 1월 29일.

“정은이 아빠는 같이 데리고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혼자 생각도 하고 그러게 따로 방에서 자게 하자고 해 밤늦게까지 같이 비디오를 보고 자기 방으로 보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정은이가 없어진거예요. 자기는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장문의 편지를 써놓고 새벽에 길을 나선거죠. 자기 코트는 안방에 있으니까 코트도 안 걸치고 동생 점퍼 하나 달랑 입고 그 추운 길을 나선거예요.”

담양의 집은 위낙 외진 곳에 있어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버스를 타려면 적어도 6Km 정도는 걸어야 하는데도 정은이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거무스름한 겨울의 새벽 들판. 이리저리 치닫는 겨울 칼바람속에 몸을 웅크린 채 묵묵히 걸었을 그 아이. 어머니의 눈가는 젖어 있다. 편지를 읽은 아버지는 정은이에게 호출을 했고, 정은이와의 통화는 금방 끊어졌다. 대전으로 가는 차비를 빼고는 여윌돈이 없었는지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한동안 아무말 없이 앉아 있던 아버지는 다시 정은이 호출기 번호를 누르고 정은이에게 메모를 남겼다. ‘아빠가 네 통장으로 돈 부쳐 줄테니, 필요할 때 꺼내써라.’

그후 3월 16일 정은이는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오던 중 구속되었다.

1심에서 정은이는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한총련 관련 부분은 무죄’라는 판결은 다소 고무적이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죄목과 선고를 정은이는 인정할 수 없어 항소에 들어갔다. 2심 재판이 있던 지난 1월 14일.

오히려 2심 재판에서 정은이의 형량은 1년이나 늘어났다. 한껏 들떠 있던 아버님은 말을 잊었고, 어머니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판사가 미웠다.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일텐데, 형량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젊은 애한테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 싶었다.

“상급법원이라면 정말 법리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도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판결한 한총련 관련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학생들에게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은이는 2년 6월형을, 경환이는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법을 적용하는데서도 모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젊고 기회가 많은 학생들에게 단지 유인물을 보았다는 이유로, 몇몇 공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니,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정부도 햇볕정책에서 보듯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우호적 동반자적 파트너로 변화되어가고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개정논의가 있을 전망인데 꿈많은 아이들에게 무거운 형이 웬말입니까. 이적행위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고 판사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목요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딸을 보러 담양에서 대전 교도소까지 먼 길을 오가는 어머니는 그래도 딸을 보고 나면 오히려 힘이난다. 언제나처럼 정은이는 웃는 얼굴로 엄마를 먼저 걱정하고 위로하려든다. ‘엄마, 신문지 한 장으로 겨울을 나는 노숙자도 있는데, 거기 비하면 나는 얼마나 편한거야. 엄마, 미안해. 하지만 큰 효도 속에 작은 효도가 있는거래요.’ 라며.

세상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神)이 부족해 ‘엄마’라는 사람을 두어 다 베풀지 못한 사랑을 베풀게 했다는 말을 믿는 어머니, 이해숙님. 그 어머니의 욕심은 너무 소박하다. 정은이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기에, 그 신념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어머니는 정은이가 타고 태어난 재능을 살려, 사회와 운동에 이바지하며 살기를 바랄 뿐이다. 너무 힘들게 지내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제 봄이다. 추운 겨울을 용케 버텼던 꽃망울들이 터져 세상을 황홀경으로 만들어갈 봄이다. 것처럼 찬 감옥에서 겨울을, 답답한 침묵의 시간을 버텼은 정은이가,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의 꽃들이 모두 세상을 향해 나와 그 찬란한 꽃망울을 터트리기를 기대해본다.

고현희 • 후원회소식 편집부

군사독재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김낙준 · 출판인 홍교선 석방을 위한 출판공대위

시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월 6일, 경찰청 홍제동 분실에 의해 여섯명의 사람이 연행되었습니다. 이 여섯 사람은 서로 어떤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간에 서로 연락도 되지 않아서 누가 연행되었는지 파악하느라 이들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월 8일 변호사가 접견을 가서야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홍제동 분실에 의하면 이들 모두 국제사회주의자들(I·S) 조직원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박현정씨는 도서출판 연구사 직원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출판사 영업부장,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 혐의로 구속수감중)씨의 재판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는데, 홍씨에게 과거 선물받은 몇권의 책자에 대해 경찰이 '이적표현물' 소지의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박씨가 I·S의 조직원이라는 것인데 이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억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과거에 I·S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7-8년 전에 활동을 정리하고 지금은 생업에 전념하거나 전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우춘씨와 김대권씨는 단국대 학생으로 현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우춘씨는 99년 7월에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면회를 한 가족과 변호사에 의하면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이미 안씨의 제대후 행적과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의 전화통화 등 행적을 조사해 놓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김대권씨는 99년 4월에 발생한 사건(홍제동 분실 수사관들이 서강대에서 사찰활동을 하다 학생들에게 발각되자 학생

들을 차로 치고 달아나다 다시 붙잡힌 사건)에서 그 때 경찰의 차에 치인 3명 중 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법적 근거로 전화를 도청하고 미행 감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경찰은 이들 중 박현정씨와 안우춘씨를 긴급체포했는데, 과연 긴급체포까지 할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제동 분실은 또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작년 한 해만도 정당의 유세장을 불법사찰하고, 학원사찰도 중 학생들을 차로 치고, 엉뚱한 사람을 수배자로 잘못 알아 연행하는 등 코미디 같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악귀가 씌웠다고 돼지머리를 모시고 고사까지 지내 비웃음을 샀던 곳입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도 칠순이 넘는 고령의 전북대 명예교수 한단석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했으며, 그 고령의 노인을 구속기간을 20일로 연장해가며 수사한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관행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답습하는 곳입니다.

홍제동이 계속 사람을 잡아들이는 I·S 사건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안이 경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또한 묻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연행되어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이 여섯명의 사람들이 당장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는 독재시대의 잔재인 대공분실과 같은 기관이 하루빨리 없어지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말한 사람 • 최수일 / 정리 • 유현미 후원회소식 편집부

오늘 아침 다섯시 반에 일어났어요. 한시간 동안 운동해요. 일어나 가지고는 바깥에 나가서 불 났던 자리 안전한가 어떤가 돌아 봤어요. 심호흡 하면서 운동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 오십 개쯤 해요. 맨손으로 삼십분 동안.

그렇게 하면 여섯시 되지 않아요? 여섯시면 뉴스를 한다구. 집 안에 들어와서 여섯시 뉴스 들어 봐요. 뉴스 틀어 놓고 십오분 동안 물구나무서기 해요. 그러니까 십오분 동안 뉴스를 다 봐요. 화면이 거꾸로 보여도 말은 다 들리잖아요. 괜찮아요. 이젠 능숙해졌어. 그러고나쁜 목 운동. 목 아프니까. 그 다음 허리 운동 하지요. 그 다음 엎드려 팔굽혀펴기 한 오십 개 해요. 현미는 몇 개 해요? 나는요, 몸에 비해서 팔이 좀 든든한 편이에요. 몸이 무겁지 않고 팔 힘이 세니까 나무랑 조르르 잘 올라요.

이제 여섯시 반이 돼요. 그러면 세면도 하고 그래요. 세면은 비누를 거의 쓰지 않고 해요. 비누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할 때나 써요. 머릿도 그냥 맨물에 감어요. 끓이지 않은 찬물로 감으면 비듬도 안 생기고 깨끗해요. 그 다음 밥 준비하지요. 일곱시가 거의 다 되었으니까. 여덟시 전에 식사가 다 끝나야 돼요. 일하러 가야 되니까. 설거지도 해야 하고.

오늘 아침 밥? 도라지 무침이지 뭐. 김치하고, 무채. 아주머니가 만들어 봐요. 밑반찬 해 놓고. 두부찌개는 내가 했지요. 뽕, 다른 데서 가져온 것도 끓여서 먹었어요. 파 좀 썰어 넣고. 잘해요. 이제 뭐, (나온 지) 일 년이나 됐는데요.

집 수리 하는 일은 작년 9월 말로 끝났지. 1월 31일부터 3월 7일까지는 공공근로 했어요. 청소하는 거. 삼성1동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혼차 하는 게 아니라 열두 명이 같이, 네 명이 한 조가 돼서. 여자도 절반쯤 돼. 나무도 뽑아다 심기도 하고. 고 작은 상록수 있잖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도랑도 깨끗이 하고. 지금 비가 안 와서 도랑이 지저분해. 한번 청소 깨끗이 해 놓으면 다음엔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다음에 가 보면 또 버려 놔. 쓰레기 중에 담배 궂초가 그렇게 많아요. 의식 수준이 아직 좀 떨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빵 먹고 그런 것도 먹고 가면서 봉지를 그 자리에 다 버리고 그래요. 상점, 자기 집 앞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일을 3월 7일까지 하고 어제부터는 특별 취로사업이라고, 지금 여섯 명이 '공부' 하고 있어. 그거는 카페트도 빨고 해야 되니까 기계 다룰 줄 알아야 돼서. 왁스칠, 산성으로 청소할 때가 있고 알카리로 할 때도 있잖아요. 왁스칠 할 때는 주로 알카리로 닦는데, 먼저 중화시켜야 하잖아. 그럴려면 좀 알아야지. 내가 고참이라 기계도 제일 잘 다룬다구.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지. 내가 무

“

하루가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지루한 거 없어요.

항상 아침이 기다려지고

사람들 보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

기분적 화학 전공했잖소. 한 이십 명 중에 내가 젤 고참이라 반장도 했어. 이번에도 내가 해야 다른 사람들도 하겠다고들 그랬지.

약품 사용하는 거 공부하고 왔어요. 내일까지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일해요. 오늘같이 공부만 하는 날도 일당 나와요. 일당 이만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마음이 다 통해요. 거 아줌마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나서서 하니깐. 가족 같애요. 오늘은 우리집에서 한턱 냈어요. 아침에 (도우미)아주머니한테 “귀한 몸들”이 온다고 점심 반찬 부탁했어요. 여섯 명이 와서 같이 먹었어요. 이번엔 마침 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거든. 내가 서울에 일 있어서 올라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금방 보고 싶어요. 어디다 굴 썼는데 제목이 “자랑 찬 우리 아줌마들”이예요. 이만원 받는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섯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다섯시에 들어오니깐 화재보험회사에서 왔어요. 사진도 찍고, 그거 안내했어요. 그 사람 가고 나서 일기 썼지요. “어제 만났지만 아줌마들, 오늘도 새롭게 느껴진다. 청소년 교실에서 청소에 대한 학습을 하고 우리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함. 넉넉하지 못한 반찬이지만 맛있게 드는 것을 보니 흐뭇하구나. 장난꾸러기 이현주 아줌마. 어린 아이같이 또 장난만 치고 있구나.” (여기 와서도 가만 안 있고 장난 잘 치거덩.) “식사를 끝나고 차를 타고 가니 이 이상 멋진 드라이브가 어디에 또 있겠느냐.”

버드나무가요, 개버들이지, 약간 푸른 기운은 있는데 아직 싹은 안 났어. 작년에 심은 배추, 겨울 동안 비닐 씌워서 죽진 않았는데. 아주 달고 고소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 한번 먹어 보면 고소하다 그래. 아직도 이십 포기쯤 있어.

지난 일요일 밤 열두 시. 옆 집 빈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야, 소리에 맨발로 뛰어나가 불 끄다가 최선록 선생님은 발에 부상 입었어. 불 속으로 뛰어다녔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펄펄 날잖아. 우리 뒷집 아주머니가 우리 안 깨워 줬으면 우리집 다 날라갈 뻔했는데, 참 고맙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뒷집 아주머니한테 단단히 사례를 할라고 해요. 소방서 차가 십분만 늦게 왔어도 큰일날 뻔했지.

밤 아홉시 반 내지 열시, 그 때는 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고, 잠을 좀 폭 자야 건강하니까. 여덟시까지 드라마도 보고 텔레비 보지요. 조금 있으면 ‘해뜨고 달뜨고’, 그거도 봐요. 그 다음 아홉시 뉴스 보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열시 사십분인가, ‘남북의 창’ 봐요. 그리고는 꿈나라로 가지요.

하루가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지루한 거 없어요. 항상 아침이 기다려지고 사람들 보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번 달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란은 유현미 회원이 선생님들이나 회원을 만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들은 것을 거의 그대로 옮기는 자리입니다.

최수일 선생님은 1939년 평북 의주에서 태어나 1965년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34년을 갇혀 있다가 1999년 2월 25일 풀려나셨어요. 현재 대전 형제의집에서 최선록 선생님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 어머니의 모든 것

—곽윤이 회원을 찾아서

뜻밖의 인물

풍채가 좋다거나 당당하다거나, 기운이 매우 장하다거나, 키가 썩 크다거나 하다못해 약삭빠르다거나. 적어도 하나는 들어맞아야만 했다.

전화통화 할때 목소리가 몹시 크고 씩씩한 탓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다. 혼자 상대하기에는 벅찰 것 같아 덩치 좋은 친구까지 불러서 함께 갔다.

그런데, 그런데... 그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 작은 키, 작은 얼굴, 작은 어깨. 서른 여덟이라는 나이는 어디에 던져버렸는지 옛되다 못해 한참 어려 보이는 얼굴에 어리둥절했다.

약속장소에 들어서서 아는체를 하는 그에게 열걸에 웃기는 했다.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내가 맞다고.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는 그런대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했는데 헤어지고 나니 또 헤갈렸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일까. 우리는 99년부터 해를 넘겨가며 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정중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심심하면 전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만나고 안 만나고 문제가 아니라 각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 자리였는데 내가 받은 충격은 아랑곳 않고 자기 성품들을 내보였다.

“혹시 이런 노래 좋아해요? 이거 제가 집에서 들던 건데 좋아할 것 같아서 줄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그네스 발차라고 알아요? 노래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 가수인데요, 제목이 ‘내 조국이 가르쳐준 노래들’ 이라고 해요. 그리스와 우리 나라 역사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제가 짜금 들었으니까 선물해도 될 것 같아서요. 새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괜찮죠?”

의행이와 해사랑

학원강사로 일하는 남편과 11살짜리 아들, 30개월된

딸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아들 의행이는 피아노 교습이 끝나자 얼굴을 내밀었다. 몇 달 사이 7킬로그램이 늘었다. 엄마는 뿌듯해하지만 의행이는 결코 엄마 덕이 아니라고 입을 비죽 내밀었다. 해사랑이를 가졌을 때 의행이는 펍 의젓했다. 동생이 생겼다고 이름도 짓고 평소 행동거지도 어른스러워서 어린 동생과 싸울 일이 없겠지 했는데 나이차가 무색하게 투닥거리고 다룬다. 이름 지어줄 때의 심정은 어디로 갔을까?

“이름을 지어줄 때는 해사랑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은 해사랑이가 태어나 있다는 차이를 아셔야죠. 해처럼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많이 주고 뒤로 읽으면 사랑해가 되고 제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성이 이씨니까 이해와 사랑이 되고...”

의행이는 엄마가 손님들 앞에서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눈빛을 빔내며 엄마 옆구리를 찔러댔다. 집 앞 씨디룸 대여점에 쓸만한 것을 눈여겨 봐둔 것이 있는데 이참에 빌려보고 싶은 것이다.

“엄마 약점 이용하지 말라구 했지? 이따가 엄마랑 같이 가서 전에 해본건지 아닌지 보고나서 결정하자 알았지?”

그러는 사이 해사랑이는 자기가 씹었던 고기 조각을 삼키기 싫다고 도리질 치면서 엄마 입에 넣어주려고 엄마 어깨를 흔들었다. 그런데 엄마가 오빠하고만 애길하자 얼굴을 찡그리며 노려보다가 탁자 사이로 들어가더니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렸다. 의행이는 씨디룸 빌리는 일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볼이 볼록해지고 해사랑이는 고기조각을 기어이 엄마 입속으로 밀어넣더니 나폴나폴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묻고 대답하고 얘기하고 웃는 그가 미술사처럼 보였다. 전화할 때의 목소리가 이해되었다.

<그 어머니의 모든 것>

그는 전주에서 나고 자랐다. 82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했다. 80년대 학생들이 하는 것을 모두 다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공장과 감옥 경험까지. 그러다가 학교 선배인 남편과 89년에 결혼했다. 그저 둘이 같이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생각의 전부였다. 그리고 나서 지독하게 앓았다. 생활과 이념과 자기 정체성이 맞물려 혼절하듯 8년을 보냈다. 지금에야 '80년대를 앓고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이해한다.

“야무지게 살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다할 일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적응을 못하면서 살았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 자체가 힘들었던 고비를 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8년동안 식물인간처럼 살았어요. 자기비하가 참 심했어요. 80년대 학생들이 하는 일은 다했어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감옥도 짧게 들어가보고. 그런데 그때는 그 모든 것을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머리가 먼저 주장하는 것을 몸이 따르던 시절이었어요. 공장 일하면서 정서는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평가다 세미나다 몰려다니느라 몸만 축내다가 말았어요.”

딸 해사랑이를 갖기 전까지 무기력감 때문에 참 힘들었다. 늘 우울하고 어디에도 마음을 못붙이고 한마디로 사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의행이가 또래들보다 덜 발랄하고 애늠이처럼 행동할 때는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조마조마하고 미안하다. 다행히 해사랑이를 갖게 되면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상담심리 공부를 하고 있다. 자기분석이 필요하다 싶어 시작했는데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정규과정은 끝났고 함께 공부하다가 만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각자 연구하고 발제한다. 스스로 모인 사람들이라 다들 열의가 굉장하다. 한달에 한 번씩 사이코 드라마 관람도 하고 있다. 어쩌나 열중해서 관람하는지 끝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앞으로 정신병리학쪽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역량이 되면 상담자원봉사자를 하려고 한다.

아침에 의행이 학교 보내고나서 해사랑이 어린이집 데

려다주고 돌아와서 대충 치우고 도서관으로 달려간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의행이 학교 끝나 집에 오고 해사랑이 데리러 가고 저녁먹고 씻기고 다시 치우고 하다보면 하루가 짧기만 하다. 얼마 전에는 근처 시민단체에 화요일마다 자원봉사를 하기로 약속하는 바람에 더 바빠졌다.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스페인 영화를 얼마 전에 봤어요. 저는 그 영화가 참 좋았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해버리는 사람들까지 다 껴안을 수 있었으면 해요. 상처입은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후원회에 뭘 바랄까? 음, 요새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많이 생기다 보니 이일저일 다 관여할 때도 있더군요. 그래서 왜 단체에서 이런 일에 나설까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원회도 자기 성격을 잃지말고 지켜나갔으면 해요.”



올바름을 위해 싸웠던 세월 뒤에도 올바른에 대한 목마름은 여전히 아득이름으로 붙들었다. 그럼에도 모자라 그는 오랫동안 절망하고 우울해 하고 힘들어했다. 나는 그가 건네준 음반을 잠깐씩 들었고 그가 일러준 영화를 아무도 없는 영화관에서 혼자 보았다. 돌아오는 길에는 황사현상 때문에 눈이 발갛게 충혈되었다.

작고 여린 한 사람이 올바른의 이름으로 시대와 싸우고 자식을 낳고 어머니가 되어 그 세월들의 의미를 묻느라 스스로를 다그쳐가며 자기 길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그 영화와 겹쳐보였다.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담금질하는구나. 충혈된 눈을 보고 사람들이 울었냐고 묻자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에 전화를 했다. 의행이가 받더니 튀어오르는 공처럼 소리쳤다.

“어? 그럼 101호에 우리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 밝음에 감염되어 덩달아 소리쳤다. - 물론이지!

박성희 · 후원회소식 편집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기다리듯, 헌책방에 앉아 이웃을 기다리다

— 과천 〈한백의집〉 김은환선생님

사내가 문으로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진다. 사내는 눈이 부서 껌벅거린다. 방에는 키 큰 미군들이 서있고, 그 옆에는 정보부원인 듯한 덩치큰 남자들이 사내를 가리키며 강한 억양의 영어로 무어라 말한다. 미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본다. 팔목을 조이는 수갑을 약간 비틀자, 뼈마디에 닿아오는 금속성에 진저리친다. 하혈이 다시 시작되는지 아랫도리가 무지근해지면서 벌써 핏물이 땀다. 핏기라곤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 뼈대만 남아 꼬챙이 같은 사내는



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열다섯이 넘는 대식구가 모여사는 집이건만 밤이면 어둠에 뒤덮혀 무덤같다. '언젠가는 저 서울처럼, 내가 크면 우리동네에 전기를 끌어올거야.' 소년의 반딧불 같은 꿈은 점점 자라났다. 왕릉의 묘지를 돌보며 별초해 주고 제사 지내주고, 그 봉토의 작은 논밭에 겨우 붙어 농사를 짓는 아버지, 그나마 그 농사도 가뭄이 드는 해에는 조금이나마 건질수 있었다. 비라도 자주오는 여름이면 잠실 이천의 수서땅은 불어난 한강물에 잠겨 애써지는 농사가 모두 수해를 입고 만다. 어려운 살

림살이 속에서든 겨우겨우 대왕 소학교를 졸업한 (44년), 소년은 15살이 되자 집을 떠났다. 뚝섬으로 해서 나룻배를 타고, 서울로 온 소년은 낮에는 신문배달, 목수, 석공, 사이다 공장등 닥치는대로 막일을 했다. 새벽잠 한번 제대로 자보지 못하며 6년간을 그렇게 보낸 소년은 마침내 혼자의 힘으로 덕수상업중학교 야간 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소년이 배운것은 단순히 덕수상고의 무기과목이 아니다. 해방직후의 서울은 그대로 소년에게 커다란 정치학교였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나 미소양국군의 점령하에 들어가 독립을 이루지 못한 혼란기. 단독정부수립을 둘러싸고 2.7 구국투쟁, 4.3 제주 민중항쟁. 여순항쟁 등 잇달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소년이 자취하고 있던 집은 나중에 알고보니 남로당 지도부 아지트였다. 뽄뽄하고 부지런한 소년을 눈여겨본 당원들은 그에게 자주 중요한 연락 임무를 맡겼다.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열띤 토론을 들으며 소년의 귀는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년이 배운것은 단순히 덕수상고의 무기과목이 아니다. 해방직후의 서울은 그대로 소년에게 커다란 정치학교였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나 미소양국군의 점령하에 들어가 독립을 이루지 못한 혼란기. 단독정부수립을 둘러싸고 2.7 구국투쟁, 4.3 제주 민중항쟁. 여순항쟁 등 잇달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소년이 자취하고 있던 집은 나중에 알고보니 남로당 지도부 아지트였다. 뽄뽄하고 부지런한 소년을 눈여겨본 당원들은 그에게 자주 중요한 연락 임무를 맡겼다.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열띤 토론을 들으며 소년의 귀는 열리기 시작했다.

성명 김은환
생년월일 1930년 7월 12일
본적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
직명 국보안법. 1969년 9월 8일 구속, 무기형.
통역당 재건을 위해 남한에 잠입하다 체포

1. 우리동네에 저 서울의 전기를 끌어올거야.

소년은 동네 뒷산에 올라가 강 건너 서울의 야경을 오래도록 지켜본다. 반짝 반짝, 캄캄한 밤하늘 아래 서울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 전선주 하나없이 먹물같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수서와는 다르다. 8남매와 고모, 삼촌, 큰아

2. 이 일을 누구한테 미루겠으.

고향을 떠나올때 옛된 소년이었으나 격동의 숨가쁜 해

방정국의 급류가 소용돌이 치는 서울에서 빠가 굶어온 그는 이제 늙은 청년이 되었다. 그러나 전문학교 진학을 앞두고 전쟁이 터진다. 인민군이 입성하자 광주군 군당에 입당해 군당 선전부 선동원으로, 다시 얼마 후 양주 군당에서 당재건사업에, 참가한다. 경기도당에 합류한 청년은 거기서 동당위원장인 허승택과 함께 빨치산조직에 관여하며 동두천, 철원 평강, 강계를 거쳐 화전까지 후퇴한다. 11월에는 조선인민군 32사단에 편입된다. 52년 2월 다시 의주로 넘어와 제 7군대내 동부전선에 참여하면서 탱크부대로 들어가 제대전까지 특무상사로 일했다. 포연속에 죽어가는 병사들의 죽음을 보며 그는 다시금 민족을 갈라놓는 외세에 대해 뼈저리게 생각한다. 전쟁은 이제 그를 부모님이 계신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56년 27세의 나이로 제대한 청년은 김책공대 전기공학부로 진학한다. 어려서부터 고향 뒷산에서 바라보던 서울의 전깃불, 비록 남한의 고향집으로 당장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전기를 강남 고향집으로 끌어오머니 계신 방을 환하게 밝혀 드릴수 있으리라. 청년은 열심히 공부해 마침내 60년에 졸업을 하고, 조선영화촬영소 기술부 전기과 기사로 배치되었다. 어쩌나 열심히 일했는지 유능함이 인정되어 6개월만에 부서장이 되었다. 친구의 소개로 전기성 설계연구소에 다니는 씩씩한 이복여성 김보패와 결혼했다. 아들 철수, 딸 금자, 경심 삼남매를 낳아기르며 9년넘게 살았다. 그러나 자신이 행복할수록 늘 고향에 계신 부모형제들, 한강물이 불어 먹을 것이 없는 그 을씨년스럽고 쓸쓸한 부엌이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날 68년 2월 당은 그를 부른다. 큰아들 철수가 여덟살 되던해였다. 결혼 생활중 한번도 다툼일이 없는 아내와 헤어지던날 밤, 그는 말했다.

“이렇게 헤어져도 아쉽다 생각마오. 맞아죽을 각오. 굶어죽을 각오되었오. 이일을 누구한테 미루겠오. 다행히 임무 완수하고 오면 좋고... 나 없어도 자식들 데리고 땃땃하게 살아주오.” 그러나 남쪽으로 떠난지 20일, 겹겹히 둘러쳐진 반공의 철조망 속에 포위당하고 추격당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69년 9월 8일 체포되고만다. 경기도 가평경찰서와 치안본부 대공분실 정보과에서 조사받다가 고문을 당하면서 이빨이 모두 망가졌다. 그후 대방동 미8군사

령부로 넘겨져 1년 3개월을 보냈다. 대장이 파열되어 계속 하혈을 하고 뼈만남아 죽게 되자 경찰서로 넘겨졌다. 인천도경 정보과에서 한달가량 거의 귀신과 같은 물골을 하고 가물가물한 의식속에 아무데서나 피땀을 썼다. 그후, 인천구치소로 넘겨져 1심에서 사형, 그후 무기판결을 받고 71년 1월 14일 대전으로 송치된다.

3. “그때, 다 돌아가셨지요.”

푸른 수의를 걸친 죄수 김은환. 이제 그는 매타작과, 구린내와 곰팡내와 벌방과 가다밥에 익숙해져야한다. 영양제 하나 못구해먹자 잇몸에선 피가 질질 흘러나왔다. 영치금 하나 보내는 이 없는 그는 개털중의 개털. ‘야이새끼’로 불리워진다. 그러던 어느날, 운동 나갔다가 뜻하지 않게 고향소식을 듣게되었다.

“아니 이거 형님 여길 어떻게 들어왔오?”

그는 고향에서도 이름난 씨름선수였다. 황소처럼 떡대 가 떡 벌어진 그가 체구에 맞지않게 어눌한 음성으로.

“술한잔 먹고 기분좀 냈지. 내가 이래보더 육영수 텔꼬 카바레에서 춤도췄다 캣더니말야, 다짜꼬짜 끌려왔는데 감빵이야. 히야, 해괴한 놈의 반공법인지 보안법인지 날귀신한테 걸린거야. 쏘! 3년먹었다구. 이놈의 주둥이때시. 흐흐.”

소위 ‘막걸리 반공법’에 걸린 것이다. 빨간딱지의 죄수는 또다른 빨간딱지의 죄수를 보고 묻는다.

“우리 집은 소식좀 아우?”

간이 타들어갈것 같은 조바심으로 그의 입을 응시한다. 씨름꾼은 그를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그를 외면하고 말한다.

“없어 임마, 너희 부모?... 없어. 니들 동생들두... 없어. 집?... 없어. 싹 없어... 아무것도 없다이.”

없다니! 싹 없다니! 죄수는 그 이상 더 물을 수가 없다. 무슨 대답이 그에게서 나올지 두렵다. 전시에 남한에서 빨갱이 집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는지 익히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여나, 그래도, 설마, 하나쯤은, 살아 있을 것 아닌가?

그는 다시한번 집안 소식을 듣게된다. 무지막지한 전향공작이 지나고 교회사를 통해 한창 회유공작이 시작되던

때였다. 단한번도 접견실에 가본 적이 없는 무기수인 그는 어느날 누가 면회왔다길레 가슴두근거리며 접견실로 갔다. 접견실에는 웬 깡마르고 초라한 사내가 서있었다.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잘못 찾아온 신저.....”

사내는 한참 눈을 껌뻍껌뻍 하더니 말한다.

“형님 옛날엔 컸었는데 왜 쪼꼬매 졌어요? 저 네째예요. ... 나머진 다아 죽고 난, 살았어요.”

“니가...? 그래... 부모님은?”

“그때, 다 돌아가셨시오. 전, 핵교도 못나왔어요. 편지도 못썩요. 남의집 머슴살다 택시 쏘니다.

어둡고 흐린 시선 속에서, 형과 아우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얼어터진 손등으로 코를 쓰옥 훔치던 8살 배기 아이가 떠오른다. 8살때 보고 처음 보는 동생이다. 택시를 끄는 동생은 3만원을 영치금으로 주고갔다. 처음 받아보는 영치금. 무엇을 할것인가. 2만원은 동지들과 같이 쓰도록 내어놓고 1만원으로 그는 책을 산다. 그후 동생은 또 한번 찾아왔다.

“형님 전향 하시오. 전향하면 올라가겠시오”

형은 갑자기 노기가 치밀어올랐다. 그건 동생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형은 아우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만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토한다.

“다신 면회오지 마라. 가! 가라구! 니들 안봐도 난 산다.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지마!”

형은 접견실에 감시하고 있는 간수에게 소리친다.

“당신들, 왜 죄없는 내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는가. 동생, 데려가! 데려가라구!”

4. 그래, 이제 시작이야.

삼십년만에 감옥문을 나선 노인은 장조카가 손을 이끄는대로 그의 집으로 간다. 장조카의 집은 성남에서도 제일 구석진 언덕배기에 문패도 대문도 없는 허름한 집이다. 감옥밖에서 첫날 밤 노인은 잠을 잘 수가 없다. 가로 세로 서로 엉켜 잠든 조카손녀들. 화장실을 가려면 자고있는 손녀들을 넘어서 한뼘도 안되는 부엌을 지나서 가야한다. 감방에서도 이런 칼잠을 자지 않았다. 감방이 세상의 끝 지옥이라 생각했는데 감방보다 더한 지옥이 여기있다니. 나이

보다 조로해보이는 장조카의 얼굴을 바라 보노라니 알수 없는 연민으로 가슴이 아리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잔 노인을 보고, 조카는 죄송해하며 머리를 숙인다.

“큰아버지. 이런데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질이 고생했습니다. 그나마, 잘못이 있는것도 다행이에요. 어려선 말죽거리에서 막일하고 누나도 16살에 남의 집 시집갔어요.”

울먹이며 조카는 그동안 징글징글했던 삶의 고초를 하소연이라도 하듯, 며칠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가서 인사드려야지요. 내일, 묘지로 갑시다.”

죽은 형을 대신해 호주가 된 그는 몽글한 그리움과 죄스러움을 안고 택시운전수를 하는 동생의 택시를 탔다. 차는 미끄러지듯 강남 테헤란로를 지나 역삼동을 지나 살던 집 수서에 당도한다. 전기를 끌어오리라던 강남땅은 서울의 전깃불이 강남쪽으로 다 옮겨진 것 처럼 불야성이다.

“여기가 조상님 산소예요.”

도저히 자신이 살던곳이라 믿기지 않는 강남땅. 택시가 몇자 주택가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동생은 남의집 텃밭을 가리킨다. 노인은 둘레둘레 여기가 어디인가 어리둥절하기만하다.

“이 텃밭 아래 방공호 묻고 총살했어요.”

남의집 뚝이 산소라니. 학살당한 자리라니. 한강변에 무리 지어있던 갈대밭이 우우우 일어난다. 일제히 하얗게 탈색된 갈대잎들이 달빛속에 아우성친다. 동생은 묵묵히 돛자리를 꺼내 깔고있다. 명태포를 꺼내고 주섬주섬 소주잔을 꺼낸다. 그래, 나는 그래도 살아 조상 문헌곳을 찾아와 술이라도 올리는구나. 수백명씩 몰살된 부락도 있다는데.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아. 시신이라도 거둘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노인은 소주에 술을 부어 따르고, 동으로 해야할 지, 서로 해야할 지 우두망찰 서서 망연히 남의집 텃밭을 바라본다. 어허어허 상사디여. 간다 간다. 가는구나, 북망산이 어디런가. 상여도 없이 상주도 없이, 피칠한 옷을 두르고, 저승길, 꼭박한 저승길, 가는구나, 아들, 딸, 지어미 한날 한시 손 붙잡고 이승을 떠나는구나.

노인은 갑자기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진다. 검붉은 피라

도 토하고 끼이 끼이 곡이라도 해야하건만, 그저 말을 잃고 등신처럼 서 있기만 할 뿐이다. 그때 그의 눈에는 텃밭에 나란히 올라오는 배추싹이 들어왔다. 그는 죽음이 품고 있는 씨앗을 보았다. 순간 자신이 왜 그토록 통일운동을 해야했는지 무엇 때문에 30년 산채로 죽음 당해야했는지 그제서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숙연히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도 그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묵묵히 생각했다. 그래,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지. 그래, 그렇구나. 이제 시작이야.

5. 어서오십시오.

과천 종합청사 건너편에는 과천의 상가가 다 모인 호프 호텔이었다. 이층으로 올라가 수선집, 커텐집, 뷰티샵을 지나면 <한라에서 백두>란 간판이 붙은 이상한 헌책방, <한백의 집>이 있다. 책꽂이엔 흑인문학전집, 한국 5천년야사, 에이즈 엑스화일, 명심보감, 눈높이 영어, 5학년 가정, 등 전혀 연관이 없을것 같은 헌 책들이 무질서 속에 질서 있게 이루어 가득 꽂혀있다. 보름남짓 성남에 머물던 노인은 4월에 과천으로 오게되었다. 노인은 어린 조카손녀가 고생해서 버는 돈, 그돈으로 산 밥을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과천에 동지들 곁으로 가자고 걱정했다. 함께 출소했던 안영기, 홍문거, 장호 선생이 머물고 있는 과천. 주택자금을 어렵사리 얻어 지하 전세방을 마련한 그들에게 노인은 면목이 없다. 그나마 30여년간 감옥에서 모은 돈 백만원, 영양제도 못사먹고 아낀, 전 재산이라 할 수있는 그돈을 조카집에 모두 내놓고 나온 것이다.

한지훈 선생의 주선으로 내게된 헌책방 '아마 6개월간은 밀지고 지내야 될거예요.' 밀지다니 어렵사리 마련한 가게를 밀지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천원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 할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연습을 해본다. 어서오십시오. 아무래도 허가 굳은것 같다. 처음 가게에 나와 장사를 하자니 말이 안나왔다. 두달이 넘으니 좀 된다. 처음엔 돈개념이 없어 얼마냐고 물으면 우물우물하다가 '얼마에 사시겠어요?' 하고 되묻고는 멧쩍게 웃으며 '적당히 내고 가져가시오' 하고 만다.

그러나 신문 잡지 등에 이 <한백의집>이 화제거리로 알

려지면서 전국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택배로 책과 옷을 부쳐주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이상한 손님들이 많다. 헌책을 가져와놓고는 책 값을 절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사갈땐 철저히 돈을 낸다. 어떻게든 알고 오는지 성남, 안양에서들 많이 온다. 이런 세상에 그래도 헌옷, 헌책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워사일까. 조카네 식구들 생각을 하며, 행색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삼천원에 다섯벌의 옷도준다. 기증받는 책 외에 책의 절반은 홍문거 선생의 노동력으로 모아진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과천 구석구석 다니며 쓰레기더미에서 헌책들을 리어카에 싣고오는 그를 보면 마음이 늘 아프다. 더운 여름 땀병에서도 그는 일손을 놓지않았다. 북에서는 해사과장을 한 존경받던 인테리가, 80나이에, 저런 노동을 하고있다니.

헌책방을 낸지 일년이나 되가는 요즈음 그는 이제 노련한(?) 장사꾼이 다 되었다. 책을 천원에 받을지 2천원에 받을지, 옷 대여섯벌에 이천원 받을지, 육천원을 받을지. 그 사람을 딱 보면 안다. 손님의 형편과 물건값을 비례시켜 정확히 값을 매기는 것이다.

그는 상가에서 '맘 좋은 할아버지'라 불린다. "할아버지 된장국 끓여왔는데 점심 같이 드십시오. 할아버지 신문에 났어요. 엠비씨에도 나고요."

옆집 수선가게 주인이 내민 신문을 그는 받아든다. 꺾어진 기사 제목아래 동지들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다. <장기수 할아버지들의 '한백의집'> 그는 안경너머로 기사를 읽는다.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차린 헌책 헌옷방. 그러나 책과 옷을 사러오는 사람보다 놀러오는 이웃이 더 많다. 오후 3시 헌책방은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는 어학원이 된다. 수십년 감옥생활. 청춘과 인생을 주고 익힌 재주. 서예도 가르쳐주고, 넘어서 허리가 빠졌한 사람들에게겐 할아버지 손이 약손이다. 침을 놔주기도 한다. "죽는날까지 이웃들을 도와야지." 오늘도 할아버지들은 북에 두고온 가족을 기다리듯 헌책방에 나와앉아 이웃들을 기다린다. (경향신문00.2.21)

그는 신문에 박힌 노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사진 위로 피골이 상접한 한 사내가 후레쉬에 놀라 눈을 커다랗게 뜨고있는 빛바랜 흑백사진이 오버랩되어 온다.

안일순 · 소설가

1. • '영남위원회 미석방자 박경순 방석수 김창현 석방대책위원회', 영남위원회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세 사람만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로 실형을 선고한 것을 규탄하고 즉각 석방 촉구.
2. • 시흥 '해명불교양로원'으로 임병호 선생님을 찾아 뵙고 묵은 세배를 드림. 선생님 건강은 전과 다름없이 부정맥, 어지럼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계심. 원장 유종호 스님도 찾아뵙고 인사 드림.
 - • 총선시민연대, 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12.12 군사반란과 5.18내란 주도자 등 전의원, 고위공직자 등 47명을 공천 부적격자로 명단 발표.
3. •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말>지 기자 김경환 씨에게 '편의제공' 등 혐의를 인정, 4년6월 실형언도.
5. • 홍성교도소에 복역중인 정의찬 전 97년 남총련의장(조선대) 면회. 함께 수감중인 전양배 학생(충남대생)에게 영치금 등을 넣어준다.
6. • 양심수후원회원들 고 김양무 선생 빈소에 문상하고 낙성대 만남의 집, 갈현동 만남의 집, 우리탕제원, 봉천동 선생님들, 한백의집 등 선생님들에게 설 세배 드림(이정태 이승미 변의숙 유현미 김은하 노혁 도연주 모성룡 나정옥 모아라 모두리 이득행 양계숙 성효진 김동원회원 등)
7. •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을 비롯, 어머니들과 박용길 장로님 찾아 뵙고 설 세배.
 - • 홍명기 선생님 찾아 뵙고 설 인사 드림.
8. • 99통일 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추진위원회 대변인 박해전(한겨레신문 기자)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서울 경찰청 옥인동 보안수사대로 연행-임기란, 김규철, 권오현 회장, 김승교 변호사 보안수사대 방문. 면회하고 석방 촉구 -한총련 학생들 항의집회를 열고 보안수사대로 행진중 윤성일 학생(연세대) 서대문 경찰서로 강제연행, 임기란 상임의장 등이 경찰서에 항의하고 면회하다.
9. • 양심수후원회 제12차년도 사업 및 재정감사 (99.4~2000.2)를 김규철 감사로부터 받음.
 - • 민가협회원들과 유선호 민주당 인권위원장 면담하고 밀레니엄 양심수 사면 촉구.
10. •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천정연 사무실). 23일 '토론회' 준비.
 - • 민가협 317회 목요집회. 여는말씀(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출판사 탄압 중단하고 홍교선을 즉각 석방 하라고 김낙준(홍교선석방대책공대위 간사), 세입자 권리 짓밟는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하라는 연설을 조문회(강제철거로 인해 시청앞에서 노숙농성 중)씨가, 범추본 대변인으로 2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박해전(한겨레신문 기자)씨를 석방하라는 연설을 이상준 민권공대위 회원이, 영남위사건의 미석방자 김창현, 방석수, 박경순을 석방하라고 김이경(박경순씨 부인), 김창현씨 아버지 연설. 안양사랑청년회 석방자 고선경(회장)씨가 이적단체 철회 촉구연설.
 - • 민가협 회원들 민주당사 방문. 이재정 정책위의장 만나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수배해제 촉구.
 -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김성학씨 등을 간첩으로 몰아 불법감금하고 고문 등을 자행한 이근안에게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선고.
11. •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민혁명당사건)로 구속기소된 하영옥씨에게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등 혐의를 인정,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언도. '민혁명 조작사건 진상 규명과 공안탄압분쇄 대책위원회', 유죄선고에 항의 규탄집회(법원 앞).
 -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병석 부장판사)는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연도공판에서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전 상임의장에게 징역1년(집행보류) 박창균, 문재룡씨에게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 •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박해전 집행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민권공대위).
 - • 양심수수원회 2월 운영위원회(이기욱 부회장 사무실).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문제, 입원투병중인 출소 선생님들 간병문제. 양심수 석방문제 등 협의.
 - • 경찰청 보안국,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 등 위반 혐의로 지방 국립대 철학과 명예교수 한 아무개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
12. •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제14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으로 박정기 선생님(고 박종철열사 아버지)을 선출(기독교회관).

13. •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한총련 대표로 평양축전에 다녀와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정민주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
-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고 김양무선생 범민련장' 발인식 영결식(고대병원)-장례행렬(고대병원-안암동로타리-용두동4거리-신설동4거리-동대문)도중 한총련 주관 규탄집회. 종묘공원, 노제-광주로 떠남, 광주 금남로 노제에 이어 망월동 5.18 열사묘역에 안장(2/14, 새벽 5시).
14. • 광주 '통일의집' 찾아 뵙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김인서 선생님 건강은 좋지 않으셨지만 복讎 가족 만나실 의지로 강한 투병생활을 하시고 계심.
- • <후원회소식> 100호 특집호 발간, 발송.
15.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 지난해 8월 평양통일축전에 다녀온 전국연합 방북대표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나창순 이성우 서원철 황혜로씨에게 징역2년6월을 박기수 강형구씨에게 2년6월 징역, 3년집행유예 선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마당에서 방북대표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갖다.
- • 은평구 불광1동에서 혼자 셋방에 살고 계신 한춘익 선생님 찾아뵙다. 또한 동사무소에 가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택보호자신청, 전화기설치 등을 촉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겠다고 약속 받았음.
16.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는(대법원 확정)김삼석씨가 다시 보안관찰대상자의 수와 사유별 통계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내다.
17. • 민가협 318회 목요집회. 여는말씀(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낙천운동에 대해 황인성(총선시민연대 조직위원장)씨 발표, 상문고 선생님 구속사례(상문고 비리재단의 복귀를 막는 과정에서 3분의 선생님이 집시법 위반으로 1월28일 구속)에 대해 박을룡 상문고 선생님 발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편입원서접수를 구속당한 황선경씨 사례에 대해 최인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발표. 박해전 범추본 대변인 석방호소를 부인 신영희 씨 발표.
- • 통일정보신문기자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인터뷰
-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문순)은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된 박해전 한겨레기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
18. • 총선시민연대, 서울 종묘공원등 전국 41개 도시에서 부패,무능정치인등 공천철폐 및 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대규모 집회열다.
- • 홍성교도소로 전양배(충남대·한총련 불탈퇴)학생 면회. 어머니 병환을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민가협 어머니들을 비롯한 양심수들 석방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께 안부 전해달라 했음.
20. • 동국대 중강당에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제9기 대의원대회를 갖고 새 지도체제를 오종렬 상임의장. 노수희. 이천재 공동의장을 선출하고 민족간부 양성, 주한미군철폐 민중생존권. 조국통일사업, 국제연대사업등 사업계획안을 채택하고 힘찬 출범식을 가졌음.
21. •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2차 집행위원회(천정연 사무실). 송환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 발제, 토론자 점검. 토론회 홍보 분담금 문제등 협의.
- •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한울삶'에서 유가족 초청, 명예회복·의문사진상규명법 등 특별법과 관련 각계대표대응 간담회 갖다.
22. •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 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박해전 민권공대위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 422법정에서 김승교 변호사의 심문과 박해전씨 진술등으로 진행.
-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창립5주년 기념대회(한양대).
- • 민주당 이재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취임 두돌과 3·1절에 맞춰 큰폭 사면을 하려했으나 '총선용'이라는 논란을 고려, 총선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
23.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인천TV방송국과 가톨릭신문사등이 후원하는 '비전향장기수송환을 위한 토론회'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160여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 진중훈 신부의 사회로 총괄발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토론자로 노정선 연세대학교수, 이기욱 민변동북아위원장(양심수후원회부회장), 신준영 '말' 지 기자, 혜조스님(불교장기수후원회 윤연위원장).
- • <한겨레신문> 기획컬럼 '흐름'에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 “눈 감기전 고향 땅 밟았으면” 기사 실림.

• • 기독교방송국 ‘북한, 통일문제’를 다루고 <시사자키> 시간에 비전향장기수송환 문제를 주제로 토론. 신준영 <말>지 기자 출연, 조건없는 송환촉구 했으며 생방송 인터뷰에서 권오현 23일 송환토론회와 관련 진행자와 질의 응답.

• • 양심수 90명에게 영치금 발송.

24. • 민가협 운영위원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재정보고 등과 제15차 정기총회 총회준비위원회 등을 구성.

• • 민가협 319회 목요일집회. 여는말씀(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국가보안법 철폐 연설을 10차 범대회 방북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2월 15일 집행유예로 출소한 강형구 전국연합 부대변인, 주한미군의 범죄적 실상에 대해 이천재 서울연합 의장 발표. 강위원 군 어머니 이순례 님이 3·1사면 없는 것에 대해 규탄연설.

• •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분쇄 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향린교회). 하여욱씨 등 판결과 관련 대책논의.

25. • 이른바 “광운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 첫공판 방청 (서초동 법원 317호 법정).

26. • 국제민주연대 창립총회(한우리교회). 이사장에 이해동목사, 공동대표로 이해동, 채수일, 이정옥, 변연식씨 선출. 총회에 이어 <사람이 사람에게> 창간 기념식.

27. • 양심수후원회 2월 산행. 우이동 그린파크 앞에서 모

두 24명이 함께하여 쌍문-방학능선-원통사에 올라 점심식사를 하고 우이계곡으로 내려옴. 소개시간, 체조 시간을 갖고 우이동에서 뒷풀이. 오늘 처음으로 홍명기, 안영기 선생님과 유기진 선생님이 함께 하심. 어린이 회원(남상일, 송인영, 송인석)도 함께 함.

28. •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병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한총련 4기 조국통일위원장 유병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결심공판. 강찬우 검사는 통신·회합등 혐의로 징역6년 자격정지 6년 구형. 이덕우 변호사와 유병문 학생, 민간통일운동 등 정당성 주장.

• •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병석 부장판사), 범민련 이현수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사건에서 1년6월 징역에 집유3년 선고.

29. • 서울지법 형사2단독(신귀섭판사)주재로 열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총목 집행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민족대회 참가 등을 들어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 변호인과 한총목씨는 범민족대회 정당성을 말하며 무죄주장.

• • 낙성대, 갈현동 만남의집, 우리당제원, 한백의집, 통일의집(광주), 민들레집(대구), 사랑의집(대전), 형제의집(대전) 등 공동체 선생님들께 지원금 드림. 강동근, 한춘익, 임병호, 이종환, 최하중 김인수, 김용수 김명수, 오형식, 김우택, 전창기, 윤희보 선생님들께 지원금 드림.

• • 미국수도장로교회가 지원하는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박경순(영남위 사건, 7년형) 님 가족에게 전달.



책소개

최선웅 선생 소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국가보안법등 위반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21년의 옥고를 치루고 나오신 최선웅 선생님께서 분단극복을 위한 치열하고 처절했던 영육의 세월 한 조각을 자전적 소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로 엮어 펴냈습니다. 분단대치의 가장 엄혹했던 60년대, 또 하나의 조국 복원을 다녀오며 자주적 평화통일 방법을 모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했고 그 담안에서 있었던 잔혹한 고문등 반인간, 반문명 야만행위를 고발한 생생한 육필수기입니다.

도서출판 '두리' 펴냄. 값10,000원

3월 산행

언제 ·

2000년 3월 19일 10시

모이는 곳 ·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

(수유역에서 가는방향 오른쪽으로 나와 마을버스 1번, 종점)

어디로 ·

북한산(아카데미하우스 - 소귀천계곡 - 칼바위 - 능선 - 정릉 - 환상적인 뒷풀이)



회원소식

- 제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광철 회원께서 제주산 건어물을 세상자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북 영주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류동수 회원이 서울에 올라왔다가 사무실에 굴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신상영 회원이 2월 27일 배종우 님과 화촉을 밝혔습니다. 오래 행복하세요.
- 박천조 회원이 4월 8일(토) 천주교 대방동교회에서 이성숙 님과 혼례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안일룡 회원의 큰따님 정연 님이 3월 18일(토) 오후 3시30분, L.C.I.웨딩홀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나라사랑청년회 노래사랑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 정형근 회원이 민중가요에 관심있는 분들을 찾는답니다. 젊은시절의 벽찬 감동을 노래로 나누어 가질 분들은 019-208-7211로 연락바랍니다.
- 권오현 회장님 64세 생신을 맞아 3월 11일, 움시롱 감사롱 회원들과 후원회 여러분들이 모여 조출한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 미국 위싱턴 에덴장로교회에서 성금 1,416,071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조영신(서울시 아현동)
김은정 임현석(전남 무안군)
박승대(대전시 진잠동)

출소장기수단생님 소식

- 이종환 선생님 가족찾기운동을 선생님과 사모님의 호적등본, 복사 등 필요서류를 이정규 운영위원의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족찾기운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큰 처제와 큰 처남을 찾아, 곧 만나뵙기로 했습니다.
- 충남 논산시에 계신 김명수 선생님께서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직장에 나가시다가 최근 식욕을 잃고 숨이 가쁜 증상 등으로 진단을 받아보니 폐에 동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월7일 논산에 있는 인제병원에서 정밀검사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빌겠습니다.
- 권주환 사모님 유의조(79세)님께서 오랫동안 질환을 앓아오시다가 5일 오후 4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들께 구강검사와 보철 등 치료를 해주셨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원인 권재신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6일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하여 용미리 남골당에 모셨다고 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남민전사건으로 무기형을 받고 10년 복역후 1988년 출소한 임동규님(24반 무예경당총관장)이 모친상(2/14)을 당했습니다. 중풍으로 앓아오신 84살 오애순님은 12일 운명하여 14일 영결식을 갖고 광주 광산구 선영에 모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월 29일, 장기구금 양심수로 오랜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선생님들이 그동안 석방운동과 후원사업을 해온 여러 분들을 초청, '감사의 자리' 시간을 가졌습니다(이화회관). 민가협,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 회원 25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선생님들은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고향 가시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 대구 민들레의 집 김종호(88세) 선생님은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시는 김창원 선생님께서 홀로 김종호 선생님을 보살펴 왔는데 낙성대 만남의 집 홍경선 선생님께서 일주일 가량 민들레의 집에 머물면서 김종호 선생님을 돌보아 드리기로 했습니다. 홍선생님은 감옥안에서도 김선생님을 정성껏 간호하셨다고 합니다. 김종호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김창원, 홍경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난 12월 풀려나신 손성모 선생님의 누님 손순례 님께서 다리관절 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여수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손선생님이 직접 누님을 간병하시러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여수에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누님의 쾌유를 빕니다.
- 박정평 선생님이 고혈압으로 신촌 동서한방병원에 이주일 정도 입원하셨다가 퇴원,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 김석형, 류운형 선생님이 매일 침, 뜸 등 치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쾌유를 빕니다.

